

우려도 한수 앞판' 했다. 이것은 지독한 냉한 시골의 냉한을 두루 아는 일이 아니라 제4차 독재 위기
지배가 한수 앞판' 했다. 이것은 지독한 냉한 시골의 냉한을 두루 아는 일이 아니라 제4차 독재 위기

2002-7-2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1113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제4기를 맞이하며

박영숙 본 위원회 공동위원장

제4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2002년 3월 8일에 출범하였다. 이 녹색위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역할은 지난 6년간의 제3기까지와는 아주 다르다는데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또한 제4기 녹색위의 운영과 활동전개에 패러다임 전환을 예상케 하는 것은 2002년도의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앞으로 4년간의 시정을 책임질 단체장과 의회위원을 선출하는 6·13지방선거로 민선 3기 자치시대가 7월 1일부로 열릴 것이다. 둘째로는 오는 8월말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의제21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는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2002 WSSD)의 영향력이다. 그리고 금번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건전한 공동체의식이 축구경기 응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1995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제1기 녹색위는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길을 트는 한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서울의제21'을 수립하였다. 제2기에서는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 경제성장,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보전의 통합정책체계를 구축하고 3자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단체, 기업, 지방정부 3자의 공동대표 제도 도입 및 지속가능성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체제를 갖추는 일이었다. 제3기에는 후반부에 난지도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녹색위가 상당 기간 표류하였으나 서울의제21을 수정보완하고 '시민실천단', '기업실천단', '공무원실천단' 등을 구성하여 의제21의 실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실천 모범사례들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제4기 녹색위는 난지도 골프장건설 갈등 해소와 서울시의 보다 나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구성된 '녹색위발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가버넌스(협치)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힘(Empowerment)을 갖추는 일에 힘써야한다. 제4기 녹색위의 구성은 부문간, 성별간의 균형이 철저하게 배려되고 있어서 가버넌스의 기능을 다하기에 족하다.

우리는 다자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가버넌스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5월27일에서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서울시가 주최한 제7차 세계대도시협의회회의가 '새천년의 대도시 가버넌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가버넌스란 '새로운 행정체계로서 시민들이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특히 소외집단을 포용하는 것이다,' '도시정부는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를 NGO, NPO들과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회의에서마저 NGO와 소외계층의 하나인 여성의 참여는 전혀 없었다.

가버넌스 문제는 녹색위에서도 참가예정으로 있는 WSSD의 핵심의제로서 상정되어 있다. 녹색위의 참가자들은 WSSD에서 새로 배울 것도 많겠지만 지금까지의 녹색위의 발전과정 그리고 의제21의 실천을 통해 얻어진 경험으로 오늘날 지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한몫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6월 한달동안 개최된 월드컵축구를 통해 온 국민이 얻은 교훈은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였다. 이것은 제4기 녹색위가 새겨야 할 화두이다.